

# 조선어의 물음단어에 대한 리해

리 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짜여있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조선어는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짜여있는 우수한 언어들중의 하나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다. 조선말표현의 풍부성은 조선말에 물음단어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의 물음단어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서술하려고 한다.

조선어의 물음단어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물음단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에서는 물음대명사는 《대상을 물음 또는 미정의 형식으로 가리키는 대명사이다.》라고 하였으며 《조선어단어론》(사회과학출판사, 2005.)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대명사이다.》라고 하였다.

우의 두 문법책에서 물음대명사에 대한 정의는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

공통점은 물음대명사가 명명적단어가 아니라 대리적단어라는것이다. 이것은 《누구, 무엇》 등의 물음대명사가 《나, 너》 등의 사람대명사나 《이, 그, 저》 등의 가리킴대명사와 같이 대리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차이점은 첫째 책에서는 대상을 《물음 또는 미정의 형식으로》 가리키고 둘째 책에서는 대상을 《물음을 품고》 가리킨다고 한것이다. 이것은 다른 대명사와 구별되는 물음대명사의 의미적특징을 지적하는데서 두 개념이 서로 차이난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첫째 책에서는 물음과 미정을 물음대명사의 의미로 지적하였고 둘째 책에서는 물음만을 물음대명사의 의미로 지적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두 문법책에서 물음대명사에 대하여 서술한 전반적인 내용은 물음대명사의 개념을 리해하는데서 동일한 견해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두 문법책에서는 물음대명사가 물음과 함께 미정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낼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어의 물음대명사가 대리적단어의 성격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음의 뜻 혹은 미정의 뜻으로 쓰인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물음대명사와 그밖의 물음단어와의 관계를 잘 아는것이다.

《조선어단어론》에서는 물음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리킴동사의 특종으로서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물음동사가 있다. ...물음동사도 물음대명사, 물음수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력점의 유무에 의거하여 질문과 미정의 두 경우에 다 쓰인다.》

이러한 서술은 물음대명사밖의 물음단어의 의미도 물음대명사와 같은 방법으로 리해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음단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사이의 정보교환의 요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부류이다.

언어교체에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보를 주거나 받을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있는 정보를 줄것을 목적으로 하면 알림문이 구성되고 듣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받을것을 목적으로 하면 물음문이 구성된다.

물음문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정보는 크게 두가지라고 할수 있다.

하나는 문장전체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의 일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정보이다.

례: ① 영수가 방에 있습니까?↗

② 누가 방에 있습니까?↘

우의 실례 ①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줄것만 요구하기때문에 듣는 사람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면 된다. 이러한 물음문에서는 물음단어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례 ②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줄것을 요구하기때문에 《철수가 있습니다.》, 《형님이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대답하여야 한다.

물음문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대답에 대응되어 사용된 단어가 물음단어이다. 우의 실례 ②에서 《철수가》, 《형님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응하여 쓰인 《누가》라는 단어가 물음단어이다. 즉 물음단어는 모르는 정보를 대신하여 쓴 단어라고 할수 있다.

조선말에서 이러한 물음단어들은 단순한 질문만이 아니라 미정의 의미도 나타낸다.

례: ③ 누가 방에 있습니까?↗

실례 ②와 ③은 형식이 똑같은데 억양이 다르다. 실례 ②에서는 물음단어에 논리적력점을 주고 문장끝에서 억양이 내려간다면 실례 ③에서는 물음단어에 논리적력점이 오지 않으며 문장끝에서 억양이 올라간다. 이러한 물음문에 대한 대답은 실례 ①에서와 같이 긍정과 부정으로 확인만 해주면 된다.

조선어의 물음단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과 미정의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례: ○ ① 교실에 몇사람이 남았습니까?↘

① 교실에 몇사람이 남았습니까?↗

○ 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 ① 그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줄것 같습니까?↘

① 그의 잘못을 어떻게 고쳐줄것 같습니까?↗

우의 실례들에서 쓰인 《몇, 무슨, 어떻다》는 ①에서는 질문의 뜻을 나타내고 ①에서는 미정의 뜻을 나타낸다. 실례 ①와 ①에 똑같이 쓰인 이 단어들은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두 단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단어의 다의적쓰임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물음단어가 미정의 의미도 나타내는것이다. 이로부터 물음단어는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에 대한 질문 혹은 미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수 있다.

대리적단어의 한 유형으로 되는 물음단어는 물음이라는 어휘적의미의 공통성으로 하여 하나의 부류에 묶어 분석할수 있다.

조선어에서는 대리적단어부류를 하나의 품사로 묶을수 없는것처럼 물음단어도 하나

의 품사에 소속시킬수 없으며 그것들을 품사적특성에 따라 각이한 품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조선어단어론》에서는 물음대명사, 물음수사, 물음동사, 물음형용사, 물음관형사, 물음부사를 각각 따로 설정하고있다.

이 책에서 물음대명사에 대한 이해는 종전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대명사를 독자적인 품사갈래로가 아니라 명사의 작은 갈래로 보았으며 《몇, 얼마》를 물음대명사가 아니라 물음수사로 본것이 특징적이다.

물음수사는 대상의 수에 대하여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수사인데 다시 대상의 수량에 대한 물음인가, 순서에 대한 물음인가에 따라 수량물음수사와 순서물음수사로 나누인다.

수량물음수사에는 《몇》, 《며칠》, 《얼마》가 있으며 순서물음수사에는 《몇째》, 《몇번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리적단어부류로서 대명사와 물음수사밖에도 가리킴동사, 가리킴형용사, 가리킴관형사, 가리킴부사를 설정하고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류형으로 각각 물음동사, 물음형용사, 물음관형사, 물음부사를 분류하였다.

물음동사는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동사인데 여기에는 《어찌하다, 어찌다, 어찌다, 어찌어찌하다, 아무리하다》 등이 속한다.

물음형용사는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는 《어떠하다, 어떻다, 어떠한, 어떠하다, 아무렇다, 여하하다》 등이 속한다.

물음관형사는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관형사인데 여기에는 《어느, 웬, 무슨, 어인》 등이 속한다.

물음부사는 물음을 품고 가리키는 부사인데 여기에는 《어찌, 어이, 왜, 아무리》 등이 속한다.

결국 물음단어는 물음대명사, 물음수사, 물음동사, 물음형용사, 물음관형사, 물음부사로 류형화된다.

《조선어단어론》에서 물음단어들을 각이한 품사에 소속시킨것은 조선어의 특성에 맞는 품사분류기준에 따른것이다. 물음단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도 이 단어들의 이러한 품사적특성을 옳게 고려하여야 응당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조선어의 물음단어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물음단어의 계선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다.

물음단어의 계선을 확정한다는것은 다양한 부류의 단어들가운데서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인가를 확정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물음단어의 계선을 확정하는 문제는 지난 시기 물음단어로 제시한 단어부류들에 기초하여 어떤 단어가 물음단어에 속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문제다시말하여 이 단어목록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다 물음단어의 성격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 단어목록밖의 단어들가운데서 물음단어에 속할수 있는 단어들이 더 있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몇개 단어를 분석하여 그의 소속관계를 확정하기로 한다. 대표적인 몇개 단어의 소속관계만 명백히 하면 그와 류사한 단어부류들의 소속관계가 밝혀짐으로써 물음단어의 보다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어의 물음단어의 계선을 정확히 확정하는데서 우선 물음대명사 《아무》의 소속관계를 명백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물음대명사 《아무》는 미정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단어 《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하고있다.

아무[대] ① 누구라고 꼭 찍어서 이르지 않고 들떠워놓고 가리키는 말. ㄱ ~도 모르는 일. ~라도 할수 있는 일. | 아무라도 좋으니 잠깐만 왔다 가거라.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있다. ② (성아래에 쓰이어) 이름대신에 그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 ㄱ 윤~라는 사람. | 지난날 이 마을에 정아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까? ③ (관형사로 쓰이어) 《아무런》, 《어떠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ㄱ ~때나 보다. ~일도 없는듯. ~ 말도 없다. | 실천과 결합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와 지난 시기 문법책들에서 설명하고있는바와 같이 《아무》는 문법책들에서 물음대명사에 소속시키고있다. 그것은 물음대명사가 물음의 뜻과 미정의 뜻을 두루 나타내기때문이며 미정이라는 의미가 물음의 의미에 포함될수 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미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어떤것이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언어교제에서 모르는 정보를 대신한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방에 있다.》는 사실에서 《어떤 사람》은 모르는 정보이고 《방에 있다.》는 알고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행동의 주체(모르는 정보)를 꼭 찍어 알려고 하는 문장을 만들수도 있으며 또는 행동의 주체를 모르는 상태로 그 사실을 말을 듣는 사람에게 확인하거나 알려주는 문장을 만들수도 있다.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꼭 찍어 알려고 할 때에는 모르는 정보를 대신하는 단어(물음단어)에 론리적력점을 주어 질문의 의미를 나타내고 모르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대로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알려주려고 할 때에는 물음단어에 론리적력점을 주지 않으면서 미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모르는 정보):(질문)누가 방에 있습니까?↘

(미정)누가 방에 있습니까?↗

누가 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정보를 대신하는 단어가 물음단어이고 질문과 미정은 거기에 포함되는 의미라고 보면 물음, 질문, 미정의 의미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물음=질문+미정

이처럼 미정이라는 의미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물음에 포함되는 의미로 볼수 있으므로 미정의 뜻으로만 쓰이는 《아무》도 물음단어에 속하게 되며 《아무》로부터 조성된 《아무렇다, 아무리》와 같은 단어들도 물음단어에 속한다.

조선어의 물음단어의 계선을 정확히 확정하는데서 또한 명사 《며칠》과 부사 《어느새》의 소속관계를 명백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며칠》과 《어느새》는 물음단어들이 다른 말뿌리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물음대명사 《몇》과 명사 《일》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 《며칠》을 사전들에서는 명사에 소속시켰는데 《조선어단어론》에서는 《몇, 얼마》와 한계렬에 놓이는 물음수사에 소속시켰다. 단어 《며칠》을 《몇, 얼마》와 같은 성격의 단어로 취급한것은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고려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레: 동무의 형님은 나이가 몇입니까?(대답: 35살입니다.)

그 사전은 값이 얼마입니까?(대답: 120원입니다.)

다음주 일요일이 며칠입니까?(대답: 18일입니다.)

우의 실례들에서 《머칠》은 《몇, 얼마》와 용법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다.

차이점은 《몇, 얼마》가 보다 일반적인 추상화를 나타낸다면 《머칠》은 낱자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물음을 나타낸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머칠》을 물음단어에 소속시키는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

관형사 《어느》와 명사 《사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부사 《어느새》에도 물음의 의미가 보존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 넌 어느새 여기 와있니?

우의 실례에서 부사 《어느새》의 용법은 《얼마나, 어떻게, 어찌》를 비롯한 물음단어들과 다른것이 없으므로 물음단어라고 할수 있다.

《머칠》이나 《어느새》와 같은 단어처럼 기초적인 물음단어로부터 합침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들도 물음의 의미가 보존되는 한 물음단어에 포함시킬수 있다.

조선어의 물음단어의 계선을 정확히 확정하는데서 또한 부사 《어떻든》의 소속관계를 명백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부사 《어떻든》은 물음형용사 《어떻다(어떠하다)》에 이음토 《든(든지)》이 붙어서 조성된 단어로서 《사정이 어떠하든》의 의미를 나타낸다.

단어 《어떻든》은 형용사의 이음형으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례: 네 주관적의도는 어떻든 너 지금 잘못 행동하고있어.

어떻든 이 일은 내가 책임질테니 너무 걱정말아요.

우의 실례의 첫 문장에서 쓰인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다》에 이음토 《든》이 붙은 형태이지만 둘째 문장에서 쓰인 《어떻든》은 부사이다. 첫 문장에 쓰인 《어떻다》가 물음단어인것처럼 부사 《어떻든》도 물음단어로 된다. 다만 《어떻다》가 질문과 미정의 의미로 다 쓰인다면 《어떻든》은 미정의 의미로만 쓰일뿐이다.

《아무려하다, 어떠하다, 어찌하다》가 품사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렇든, 아무렇든간에, 아무렇든지, 아무렇든지간에, 아무튼, 아무튼지, 어떻건간에, 어떻든간에, 어쨌건, 어쨌건간에, 어쨌든, 어쨌든간에, 어쨌든지, ...》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부사 《어떻든》과 같이 물음단어에 소속시킬수 있다.

이상에서 조선어물음단어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보았다.

언어학자들은 조선어물음단어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여 언어학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필자는 중국실습생임)